



국가대표 김지수의 질주 12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레인보우 슬로프에서 열린 '2012 휠라컵 FIS 용평 국제 알파인스키대회' 대회전 경기에서 국가대표 김지수가 날렵하게 슬로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60> 추락한 '디펜딩 챔프'

2010시즌 리더십 부재에 잦은 용병술 실패 해태 시절 포함 창단 후 최다 16연패 '수모'

2010시즌 KIA 타이거즈는 야구팀이 아니라 킥복싱팀으로 명성을 날렸다. 전년도 '다승왕'이었던 로페즈와 '야시안게임 영웅' 윤석민은 역전패의 화풀이를 쓰레기통 걷어차기와 벽치기로 하면서 팀과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원인을 따져보면 벤치의 리더십 부재와 잦은 용병술 실패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였지만 프로정신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2009시즌 극적인 우승으로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킨 KIA에게 2010년은 V11로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제대로 전무조차 치러보지 못한 채 자중지단으로 괴멸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악재는 겹치는 법, 조범현 감독과 불화를 겪었던 뜨거운 감자 '장성호 트레이드 사건'에 이어 구토스를 포기하고 영입한 로드리게스는 팔꿈치 부상으로 개막 직전 귀향 조치되고 말았다. 거기다 팀 전력의 핵심인 김성현이 부를 수술에 이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데다 최희섭마저 바뀐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하지 못하며 상대 투수들에게 '쉬어 가는 중심타선'이 되고 말았다.

적전분열을 일으킨 KIA는 6월18일 문학 SK전서 3-4로 패한 경기부터 7월8일 잠실 두산전서 2-5로 패한 경기까지 믿고 싶지 않은 16연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야만 했다. 7월9일 뉴에이스 양현종의 호투와 나지완의 홈런 수훈으로 한화전 4-2 승리를 거두던 날 홈팬

관중들은 마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날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KIA는 장장 3주 동안 SK(6패)·두산(5패)·넥센(3패)·삼성(2패) 등에 수모를 당했는데, 이 16연패의 기록은 해태 시절 포함 창단 후 최다연패의 뼈아픈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

7월에는 악몽 같은 연패를 끊고 부상에서 복귀한 김성현과 신들린 타격감으로 리드 오프 맨의 소임을 다 한 이용규를 앞세워 6위에 올랐다.

에이스 윤석민의 복귀로 탄력을 받은 KIA는 8월에는 5위 고지를 탈환하며 4위 롯데에 2경기차까지 추격하며 4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윤석민이 롯데 홍성흔의 손등과 조성환의 머리를 맞히는 투구로 시즌 아웃되면서 꿈은 사라졌다.

마운드에서는 뉴 에이스 좌완 양현종이 16승8패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타격에서는 '신바람의 아들' 이용규가 유일한 3할타(0.307)에 25도루로 체면치레를 하였을 뿐이다.

전년도 챔피언인 KIA는 타이틀을 잃어, 골든 글러브 수상자 한 명 배출하지 못한 채 59승0무74패(0.444)의 종합 5위의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KIA 美 전훈 출발 모런데 어찌나...



최희섭 논란에 연봉협상까지 지지부진 윤석민·이용규·안치홍 등 합류 불투명

KIA 타이거즈가 오는 15일 미국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2012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풀지 못한 숙제로도 무등경기장이 여수선하다.

겨우내 자취를 감췄던 최희섭이 첫 합동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새 사령탑을 앞세워 야심차게 새 출발을 한 KIA는 '최희섭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면

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전력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구단이 최희섭에게 '생각의 시간'을 주었지만 전지훈련 합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코칭스태프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전력 구상을 해야 할 처지다.

최희섭 논란 속에 연봉협상까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KIA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는 전지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골든글러브 3인방 윤석민·이용규·안치홍을 비롯해 서재응·손영민·이종범·한기주·김희철 등 주축 선수들이 계약서에 아직 사인을 하지 못했다.

12일 훈련이 끝나고 미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봉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민의 연봉은 핫 이슈. 한 차례 금액 조정이 있었지만 인상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수 4관왕에 걸맞은 최고 대우를 요구하는 윤석민의 계산과는 여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00만원 삭감이라는 한파를 맞은 서재응도 계약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계약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전지훈련 출발을

코앞에 두고 캠프 결원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다.

모 선수는 "어차피 연봉 조정신청을 해봤자 선수들에게 불리한 만큼 연봉 신청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름대로 팀에서 역할을 했던 만큼 구단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처음 제시했던 액수와 변함이 없다. 고과에 따른 거라지만 형평성을 놓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미계약자들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희섭의 삭감폭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연봉협상을 놓고 KIA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골프 유망주에 노승열·강성훈

미 골프채널 25인 선정

노승열(21·타이틀리스트), 강성훈(25·신한금융그룹),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22·캘러웨이)이 미국 골프채널이 선정한 세계 남자골프 25세 이하 유망주 25인에 포함됐다.

골프채널이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25세 이하 유망주 25명 명단에서 노승열은 8위로 평가됐다.

골프채널은 노승열이 훌륭한 장타자라며 유럽과 아시아 투어에서 우승을 경험하고 메이저 대회에도 6차례 나가 5차례 컷을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12위에 오른 이진명(대니 리)에 대해서는 "2008년 US아마추어 선수권자로

2009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프로 전향 이후 다소 부진이 있었지만 지난해 네이션얼오픈 투어를 거쳐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강성훈은 21위에 올랐다.

한편 골프 다이제스트도 올해 PGA 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낼 선수 10명을 선정했다. 따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맨 첫 장에 노승열을 앞세웠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아직 PGA 투어 우승 경험이 없고 지난해 상급 랭킹 50위 이하의 선수들 가운데 올해 눈여겨볼 선수 10명을 뽑았다. 한국(계) 선수로는 노승열 외에 이진명과 배상문(26·캘러웨이)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떡갈비 16대 혼자서 똑딱... 학창시절 먹성 좋았죠"

모교 광주일고 찾은 선동열 감독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이 모교인 광주일고를 찾았다. 무등경기장 신축구장 건립 공사와 천연잔디 교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KIA 선수단이 광주일고에서 오후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모교에 선 선동열 감독은 "1980년에 광주일고에 재학중이었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학교에서 합숙을 하고 있을 때 5·18

이 일어났다. 그때는 뭐가 된지는 잘 몰랐는데 총소리가 나면 합숙소에 숨어있다가 총소리가 그치면 조용히 나와서 연습을 하곤 했다"며 "어렵게 연습을 하긴 했는데 결국 대학은 취소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선 감독은 또 "당시 광주상고(현 동성고)에는 이순철 수석코치가 재학중이었던 만큼 광주일고와 함께 광주 야구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벌써 그게 30여년 전의 일이 됐다"고 말했다.

먹성좋은 학창시절의 얘기도 풀어냈다.

선 감독은 "학교다닐 때는 정말 많이 먹었다. 밥 3공기는 기본이고 떡갈비 16대를 혼자 다 먹기도 했다. 친구들과하고도 먹는 내기도 많이 했다. 전뽕 100개 먹기, 풀라 한 병 원샷하기 등을 하면서 놀기도 했다"고 웃었다.

한편 '학생 선동열'에서 KIA 새 사령탑으로 돌아온 선 감독의 인기는 모교에서도 발휘됐다. 선 감독은 학부형들과 까마득한 후배들로부터 사인 요청을 받는다 분주한 오후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빗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천연가죽시트, 수입타이어, 미쉐린, 수입타이어, 4각 교체시 스프링(공짜),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평생 펌크 무상점검,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브러쉬워셔서액 무료증정,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모비스순정유품, 키약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자동차 앞유리 썬팅,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뜨거운 태양 (열차단),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타이어 4각 교체시 스프링(공짜)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대형 35만원 ⇒ 23만원